

직업훈련 만족도 향상 방안 마련

전북여성교육문화·새일센터, 교육 강사 대상 강사 간담회 열어
“어려운 고용상황 속 전문인력 양성, 기업 신성장기반 마련 기회”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윤애 센터장)는 11일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 강사들을 대상으로 강사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 지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전북여성새일센터)에서 추진하는 직업교육훈련 운영과 관련해 전문·취업 대비·소양교육 강사 2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생 관리 및 취업처 확보, 직업교육훈련 만족도 향상 방안 마련을 위해 열렸다.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윤애 센터장)는 11일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 강사들을 대상으로 강사간담회를 열었다.

직업교육훈련은 지난해 11월 구직자와 구인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8개 과정 프로그램을 선정, 올해 5월부터 운영 중에 있다.

성장동력산업인력양성교육 전문 강사로 참여하는 한국폴드(주) 송길섭 본부장은 “최근 어려운 고용상황에서 관련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은 기업에 새로운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기회라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양성과 우수인재를 보급한다는 사명감으로 현장강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교육생들이 관련분야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이윤애 센터장은 “직업교육훈련은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디딤돌과 같은 역할을 한다”며 “결혼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거나 다양한 경험이나 자격이 없는 여성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주고 있고, 특히 우수한 강사들을 통해 양성된 여성인재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실어주겠다”고 밝혔다.

현재 센터는 올해 총 8개 과정의 경력단절 및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직업교육훈련생 간담회와 일자리협력망위원회를 통해 제시됐던 소양교육 확대, 현장실습교육 운영, 기업(현장) 강사활용 등을 반영한 실무중심 맞춤형 교육을 운영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취업지원팀(063-254-3610)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용담호 사계의 멋진 풍광

진안문화원, 16~26일 '용담호의 사계 사진전'

진안문화원(원장 우덕희)은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진안문화의 집에서 '용담호의 사계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용담댐 건설 후 흘러간 세월만큼 용담호의 사계절을 주제로 사진에 담은 40여점의 작품이 전시되며, 진안군민과 관광객, 그리고 고향을 그리시는 모든 이들에게 변모한 용담호 사계의 멋진 풍광을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사진전에 출품한 열재청 작가는 1981년 동아일보사 주최 동아국제사진전에서 입선을 시작으로 작품 활동을 한지 40년이 되었으며, 대한민국사진대전 추천작가, 대한민국 정수사진대전 초대작가, 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 한국사진작가협회 전주지

부 부지부장을 역임했으며, 2018년 전주시 예술상을 수상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실내행사 자체 권고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기념식 행사는 진행하지 않는다. 전시회 종료 후에는 사진 작품을 진안군 관내 유관기관에 무상 기증하기로 했다.

우덕희 원장은 “좋은 사진은 카메라의 앵글의 심도 조절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예술혼에 좌우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작가님의 노력으로 용담호가 품은 아름다운 풍광을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천 환경개선 자원봉사자 모집

문의전화 063-288-9700



차별·편견 없는 양성평등 손자녀 양육 방법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조부모 대상 '바른생활 양성평등 교육' 실시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이윤애)는 11일 본 센터에서 도내 손자녀 양육을 돕는 조부모 40여명을 대상으로 '조부모 바른생활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했다.

2018년 보건복지부 보육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유아 양육지원 제공자의 83.6%가 조부모다. 특히 조부모가 손자녀 양육에 소요하는 평균 시간이 주당 5.25일(42.53시간)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조부모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손자녀 돌봄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조부모의 양성평등의식은 매우 중요해짐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조부모 바른생활 양성평등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

어울림연구소의 박민인 대표가 강사로 나서 ▲양성평등의 개념 ▲조부모의 성 역할 고경



관념 점검 ▲손자녀 양육 시 편견과 차별이 없는 양육방법 등을 강의했다.

교육에 참여한 A씨는(전주시 삼천동) “맞벌이하는 자녀를 위해 손주를 돌보고 있다”며 “그간 우리 삶 속에 존재하고 있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또 교육을 통해 편견없는 손자녀 양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보석문화상품 공모 추진 방향 논의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자문위 열어

익산 보석박물관은 11일 시청에서 위원장(부시장)을 주제로 보석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를 열어 보석문화상품 공모전 추진 방향 및 보석박물관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하는 보석문화상품 공모전은 익산의 특화된 귀금속·보석 산업의 우수성과 보석을 테마로 한 관광 상품을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면서 우수한 귀금속·보석 문화관광 상품을 수집·개발해 '보석의 도시 익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시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홍보시에도 보석박물관과 주얼리시장을 부각시키면서 익산의 다양한 역사 문화재 및 관광 이미지를 귀

금속·보석 디자인에 접목하며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유희숙 부시장은 “전국적 규모인 이번 공모전을 통하여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석의 도시 익산'과 국내 유일의 보석박물관이 널리 알려져 익산시가 500만 관광객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보석박물관은 지난 5월 6일 재개관 후 '강성수 전통공예 명인전', '가족소중 상설공연' 등 행사와 '보석박물관·주얼리시 입점업체 임대료 감면' 등을 추진해 코로나19로 인하여 침체된 지역 관광산업과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인월의 역사·풍수지리, 책 한권에 담다

남원 인월면 '내고향 인월 2020' 발간

남원시 인월면(면장 양선모)은 면의 역사와 풍수지리, 마을유래 및 지명 등을 담은 내고향 인월 2020 인문홍보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발간을 위해 인월면은 운봉현을 중심으로 한 동남원 지역의 역사를 기록한 운성지(1996년판)와 신운성지(1997년판)에서 인월면 부분을 발췌해 80쪽 분량의 홍보책자를 발행, 주민들이 고향을 이해하고 고향을 대 물림해 주는 홍보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책지에는 인월 26개 마을의 유래와 산 이름, 지명을 비롯해 인월지역에 전해 내려 오는 민



간설화와 전설 등으로 꾸며졌다.

/남원=김기두 기자